



미 증시, 긴축 중단 기대, ARM 상장 효과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4일(목) 미국 증시는 ECB의 추가 인상, 미 소매판매 호조, 유가 90 달러 돌파에도,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종료 기대감 속 ARM(+24.7%)의 IPO 흥행, 양호한 PPI 결과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0.8%, 나스닥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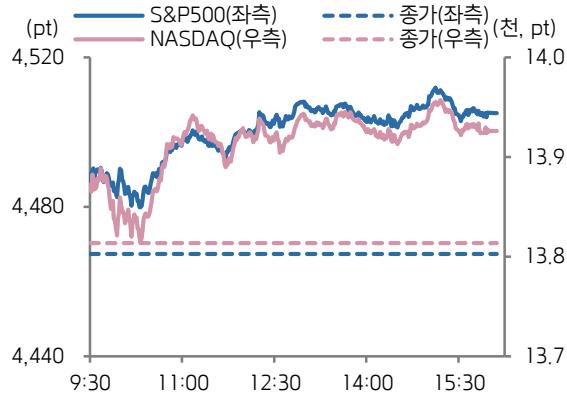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부동산(+1.7%), 유틸리티(+1.5%), 소재(+1.4%), 에너지(+1.3%) 등 전업종이 강세. 반도체 설계업체 ARM(+24.6%)은 이날 미국 증시에 상장해 공모가 대비 10% 상승한 채로 출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수급 유입에 힘입어 20% 넘게 폭등한 채로 마감(시가총액 652 억달러).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4.0%로 25bp 추가 인상을 단행(시장 컨센서스는 동결).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오랜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금리인상의 배경이라고 설명. 그와 동시에 정책 금리가 충분히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면,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적시에 되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힘.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향후 금리 결정은 추후 입수되는 지표, 인플레이션 역학, 통화정책 효과 등을 반영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토대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언급. 경기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개월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용은 증가했지만 고용시장 모멘텀은 둔화되는 등 경제 전망이 하방 위험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진단. 또한 이번 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위원들 만장일치가 아니며, 일부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선호했다고 밝힘.

미국의 8월 소매판매는 0.6%(MoM)으로 전월(0.5%) 및 컨센(0.2%)를 상회. 8월 생산자물가는 1.6%(YoY)로 전월(0.8%) 및 컨센(1.2%)를 상회한 반면, 근원 생산자물가는 2.2%(YoY)로 전월(2.4%)에 비해 하락했으며 컨센(2.2%)에 부합. 한편,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0 만건으로 전주(21.7 만건)에 비해 증가했으나 컨센(22.5 만건)은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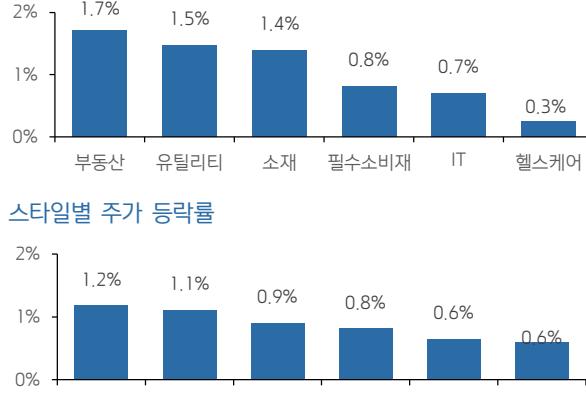
중국 인민은행(PBOC)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9개월만에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은 25bp 인하하겠다고 발표. 이들은 경제회복기반을 다지고 합리적이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자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또한 현재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내생적인 동력과 사회적인 기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72.89	+1.51%	USD/KRW	1,325.67	-0.31%
코스피 200	341.19	+1.55%	달러 지수	105.34	+0.55%
코스닥	899.47	+1.9%	EUR/USD	1.06	+0%
코스닥 150	1,398.93	+2.02%	USD/CNH	7.29	-0.05%
S&P500	4,505.10	+0.84%	USD/JPY	147.44	-0.02%
NASDAQ	13,926.05	+0.81%	채권시장		
다우	34,907.11	+0.96%	국고채 3년	3.835	-1.5bp
VIX	12.82	-4.9%	국고채 10년	3.917	-3bp
러셀 2000	1,866.63	+1.4%	미국 국채 2년	5.011	+4.2bp
필라. 반도체	3,584.23	+0.67%	미국 국채 10년	4.286	+3.8bp
다우 운송	15,369.29	+0.92%	미국 국채 30년	4.381	+3.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79.75	+1.33%	WTI	90.16	+1.85%
MSCI 전세계 지수	685.60	+0.86%	브렌트유	94.18	+2.5%
MSCI DM 지수	2,982.69	+0.87%	금	1932.8	+0.02%
MSCI EM 지수	982.11	+0.77%	은	22.75	-0.72%
MSCI 한국 ETF	62.84	+1.31%	구리	378.25	+0.7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6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7.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미 8 월 CPI, PPI 결과가 시차를 두고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체크 사항

2. 장중 발표될 중국 실물지표

3. 애플 아이폰 15 사전예약 시작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긴축 경로에 대한 우려요인과 안도요인이 혼재된 양상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가 상승에 기인하며 미국 초과저축 여력 감소, 유로존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원유 수요 부진 가능성 등 감안했을 때 매크로발 증시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유효.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동결 예상을 깨고 25bp 인상을 단행, 2011년 이후 최고치인 4.0% 도달. 유로존 CPI는 YOY 5.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최근 제조업, 서비스업 PMI 가 동반 부진을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미국 8 월 PPI는 예상치를 상회(MOM 0.7%, 예상 0.4%, YOY 1.6%, 예상 1.2%). 최종수요 상품 중 휘발유 가격이 MOM 20%, 전체 에너지 부문이 10.5% 급등한 것에 기인.

이처럼 유가가 90 달러를 상회하며 미국, 유럽의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를 자극. 그러나 전일 미 국채금리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상승, 높은 시장금리 수준에 대한 민감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근거는 근원 PPI 의 경우 예상치에 부합 및 하락추세를 유지(MOM 0.2%, 예상 0.2%, YOY 2.2%, 예상 2.2%). 추가로 8 월 헤드라인 소매판매는 MOM 0.6%(예상 0.1%)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 그러나 전월치가 0.7% → 0.5% 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 존재하고, 자동차 및 가스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는 0.2% 증가에 그치며 전월 0.7% 대비 하락. 특히 YOY 로는 2.5% 증가 및 8 월 CPI 3.7% 감안 시 실질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 잭슨홀 미팅 이후 불거졌던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결과였다고 판단.

ECB 역시 금리 인상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며 이번 인상을 마지막으로 긴축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 근원 CPI 5.3% 상승,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5.1%, 2.9%를 기록하고, 25 년되어서야 2.2%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는 미국과 차별화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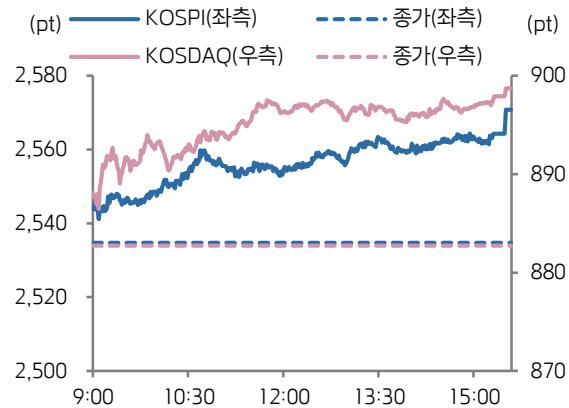
14 일(목) 국내증시는 미국 8 월 CPI 결과를 양호하게 소화한 가운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외국인의 선물 1.2 조원 순매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KOSPI 1.51%, KOSDAQ 1.9%).

금일 역시 미국 CPI 와 PPI 결과를 양호하게 소화하는 가운데, ARM 상장 후 첫거래일 25% 가까이 급등하는 등 투자 심리 개선되며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질 것으로 판단.

특히 전일 이차전지 장비, 반도체 전공정, 로봇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외국인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NAVER 등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심의 급등은 IPO 흥행 영향 및 삼성전자 16 나노 디램 가동률 정상화 및 감산증단 단독 보도가 크게 작용. 사실 확인 필요하지만 일부 낸드 가격의 선제적인 반등 및 업황 바닥 통과 기대감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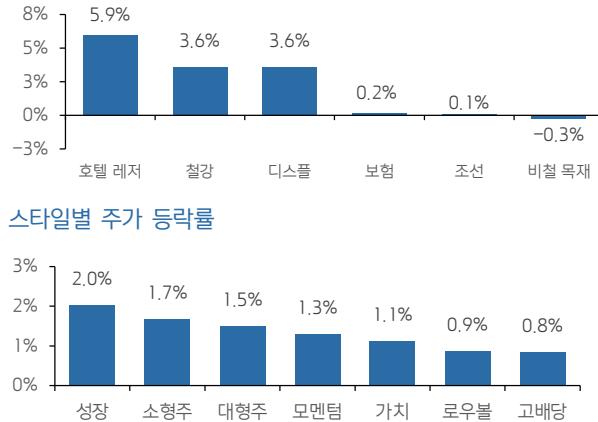
9 월 9 일~21 일까지 연준위원회들의 블랙아웃기간 돌입, 8 월 CPI 양호하게 소화했으므로 연준 이벤트는 소강국면. 11 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므로 9 월 FOMC 에서 이를 확인할 때까지 대기하며 점차 4 분기와 내년도 실적으로 초점이 이동할 것. 코스피 EPS 이익전망치 상향은 이번주 들어 소폭 둔화되었지만 선행 PER 은 10.7 배까지 하락하며 벨류에이션 부담은 적은 상황. 이에 따라 최근 배당 플레이로 강세 보였던 자동차, 금융, 보험, 증권 업종에서 내년도 이익개선 모멘텀 뚜렷한 반도체 및 IT 부품, 장비 업종에 베팅하는 수급이 나타날 가능성.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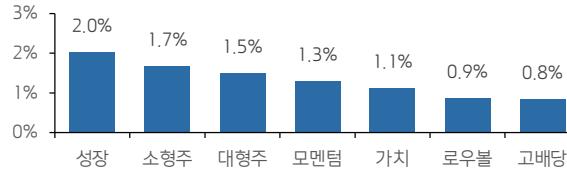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